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보시었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져주시기 위하여 군수공업전선의 최진두에 서시어 불같은 헌신과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새형의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국방공업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제작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이른 새벽 몸소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어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실태를 세심히 료해하시고 시험을 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속에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게 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가장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자기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스승의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한초한초 역사적인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연소실의 추진력특성과 타빈뿔프장치, 조절계통, 각종 변들의 동작정확성, 구조적안정성과 믿음성을 비롯한 대출력발동기의 전반적인 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대에 오르시어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대출력발동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세차게 뿔어져나왔다.

시험결과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완전히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 발동기동작 전 과정에서 연소실의 추진력특성과 타빈뿔프장치, 조절계통들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여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구

조적민음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게 시험과정을 주시하던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성공적인 과학기술지표들에 접하고 뿔어오르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켓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운반능력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로켓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공업전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어 천만군민의 혁명적대진군에 활력을 더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눈부신 령마루에 높이 올라선 우리 조국의 승리에는 주체무기개발완성을 위해 열혈의 심장을 아낌없이 다 바쳐 투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스며여있다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시험에 참가한 국방과학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뜻깊은 사변을 예고하는 《3.18 혁명》

얼마전 공화국의 국방과 학부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시험이 있었다. 시험을 통하여 이전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의 전반적인 기술적지표들이 확정되었다. 그날 대출력발동기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성공을 축하하여 개발자들을 열싸안아주시고 등에 업어도 주시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시었다.

그날의 감동적인 광경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는 북의 최고지도자가 누군가를 직접 등에 업은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애민정치의 최고절정이고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한 최상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평하였다.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개발 완성으로 공화국은 군사강국의 령마루에 더 높이 오르고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과학기술적대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는 독자적인 개발창조형공업으로 급속히 도약한

공화국의 로켓공업발전은 국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전략무기개발을 가장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인 로켓공업발전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찬바람부는 이른봄날에도, 때로는 삼복의 무더위가 썩물쿠는 날에도 로켓발사장을 찾으시고 시험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며 주체적인 로켓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군사대국들이라고 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있는 대기권재돌입기술을 당당히 확보하여 탄도로켓기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것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북돋아주시며 대도로켓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가 낳은 자랑스런 현실이다.

모든 계통들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여 안정하게 유지되고 구조적민중성도 충분히 보장된다는것이 확증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개발 완성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침을 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로켓공업발전의 대비약인 것이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우주에로의 진출은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우주개발경쟁은 날을 따라 치열하여지고있다.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리용은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이며 우주정복은 일관한 국가전략이다. 우주개발역사가 오래거나 위성보유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도 운반로켓발사기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성을 쏘올린 레는 없다.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며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이미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를 제작완성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를 개발하여 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세계적수준의 위성을 겨룰수 있는 과학기술적도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로켓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을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

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시었다.

공화국의 주체무기개발과 우주개발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지기 위한 정당한 자주적권리행사이며 불변의 레도이다.

적대세력이 그 어떤 제재나 압력을 가해도 조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자립의 길, 자위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게 할수 없다. 공화국의 자립적인 군사적, 경제적위력에 대해 로씨야언론 《스부트니크》는 《조선은 자국에 대한 압력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평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원종합대학 루더거 프랭크교수는 《미국의 제재속에서 생존해온 조선은 레일도 영원히 존재할것이다. 제재로 조선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은 해와 별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허황한 꿈이고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견해를 표명하였다.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강국건설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이번 시험은 과히 중대한 력사적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처럼 세계는 조선이 대출력발동기시험에서 거둔 오늘의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곧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자강의역센 힘으로

자기 힘이 제일이다

지난해 9월 공화국의 우주과학부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하고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이 완전히 확인된 결과 정지위성운반로켓을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고 각종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는 운반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고

대출력발동기시험을 지도하시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아갈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하시었다.

기계제품들은 하나와 같이 세계적수준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하루빨리 계절생산에 들어가도록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행사준비위원회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행사준비위원회가 1일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이, 부위원장으로 차상보, 최수봉부의장들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중앙보고대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예술공연을 비롯한 경축행사들의 의의있게 조직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전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었다.

이른새벽 건설장을 찾으시고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회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불만 하다고,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조국의 동이 떠오른것만 같다고, 말그대로 려명거리라고 말씀하시었다.

건설장의 불빛이 려명처럼 보인다.

건설자들은 물론이고 건설장역을 지나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불빛을 보아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심원한 뜻을 담아 말씀하신것이다.

그이의 말씀이 큰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의 흥벽을 울리고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피눈물의 12월 온 나라가 비애에 잠기고 세계가 공화국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그때 천만군민이 억척같이 일어나 오늘과 같이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질풍처럼 내달려 올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었기때문이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천만년 미래를 앞당겨오시며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넘고 헤치신 험한 령길과 파도세찬 풍랑길, 하늘길은 몇천몇만



려 명 이 밝 아 온 다

리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헌신과 로고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빛나는 현실로 하나하나 꽃피나고있다.

동방의 자위적핵강국,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우뚝 서서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나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공화국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5년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천지개벽과 천

도개벽,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비약하며 전진하는 공화국의 힘찬 발걸음을 막아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약탈하고 집요하여도 오히려 공화국의 전진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었을뿐이다.

만리마속도의 창조!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빈터우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내어

기적을 창조하며 인민의 행복의 터전,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웠다.

오늘날 그들의 후대들은 신화적인 만리마를 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1년, 바로 그 한해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새 거리를 신화처럼 솟구쳐 올렸다.

보통때의 1년이 아니었다. 공화국의 자력자강의 힘과 적대세력들의 초강도제재와의 피어린 대결이었고 지난해 9월

려명거리건설장을 떠나 석달 동안 북부피해지역에서 간고한 복구전투를 벌리고 또다시 신들레를 풀새없이 이어온 건설의 대격전이였다.

무엇이 아홉달이라는 너무도 짧은 기간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안아올리게 한것인가.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운명도 미래도 있으며 그이의 높으신 뜻과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나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하고 세상만물을 누려갈수 있다는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확신과 힘찬 투쟁에 있다.

낮에 이어 밤에도 쉬임없이 건설의 새로운 신화들이 창조되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그것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읽으시었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뿐 아니라 레일의 사회주의강국을 그려보시었으리라.

그래서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려명처럼 보인다고 하신것이 아닌가.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불가항력적힘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약탈한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공화국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자기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아름다운 선경으로 머지않아 완공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것이다.

자연의 려명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것이지만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은 세월을 주름잡는 절세위인의 향도의 손길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오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얼마전 온 나라에 일 잘하는 공장으로 소문난 평천고려약공장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기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란 시험발사를 걸고든것과 관련한 외무성 대변인대답에 접하게 되었다.

(자강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해가는 공화국에 그 무슨 제재나 압박파위가 통할리 없지.) 방송에서 울리는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들으며 기자는 이런 생각으로 배심이 든든했다.

자기 힘이 제일

《일군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업원들에게 자력자강의 불굴의 정신력을 깊이 심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지않았던 공장을 일떠세운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문순옥지배인이 또박또박 씩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으로 우리에게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식량도, 원료도, 자금도 부족하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오늘날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진지한 그의 어조에는 자력자강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주지않았던 공장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불과 수십명의 녀성종업원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장이 어떻게 되어 자강력의 전형단위로 될 수 있었을가 하는 직업적호기심이 기자를 17년전의 평천고려약공장구내에 다시 서게 하였다. ...

문순옥이 평천고려약공장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된것은 2000년 9월, 당시 공장형편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다. 보잘것없는 설비 몇대, 몇개의 약조마대과 얼마간의 자재밖에 없는 창고, 생산물이라고는 고작해서 몇가지 안되는 고려약뿐. 구역판내는 물론 공장이 위치한 동주민들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공장, 이것이 주지않다싶이 한 당시의 공장형편이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문순옥지배인은 고난의 행군시기 풀죽을 먹으면서도 일터를 끝까지 떠나지 않은 오랜 종업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고려약 개발에 온 힘을 바쳐

바다물이 짠가를 알자면 물 한방울이면 족하다고 했다. 눈앞으로는 방금전에 만났던,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자강력을 발휘하여 고려약 생산부문의 앞장서 내달리고 있는 평천고려약공장 종업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것이 공장을 꾸리는 사업이었습니 다. 애국은 자기 집뜨락에서부터 시작되듯이 공장을 번듯하게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체로 일떠설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그는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앉아있는 앙금을 걷어내는 심정으로 흠뻑이 날리는 공장전모를 일신하기 위해 연설이나 호소는 없었다. 모래와 세멘트를 날라오고 작업복차림으로 밤낮없이 일하는 지배인의 땀에 젖은 모습이 그것을 대신했다. 그 모습에 감동되어 종업원들이 떨쳐나섰다.

구내포장공사를 진행하고 공장출타리를 번듯하게 세웠으며 집체적지혜를 합쳐 240여장의 도안들을 그려가며 공장안팎의 위생조건과 생산문화를 몰라보

게 일신시켜나갔다. 일터로 들어서는 종업원들의 걸음은 짐차 가벼워졌다. 이 나날 고려약생산조건과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이 그쵸히 갖추어지고 8개로 늘어난 창고 마다에 100여종에 10t이 넘는 약초와 자재를 그득히 쌓아놓은 공장에서는 만가동, 만부

평천고려약공장에 가면 큰 진렬장이 있다. 거기에는 공장에서 국가지표위에 더 생산하고있는 수십종의 고려약들과 건강식품들 그리고 특허증서, 발명증서를 비롯하여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이 받은 수많은 과학기술증서, 메달들이 진렬되어있다. 그것만 보아도 이 공장의 확고한 과학기술중시기와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일본새를 엿볼수 있었다.

자그마한 고려약공장에서 거둔 성과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수많은 과학기술성과 들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기자에게 문순옥지배인은 처음 부터 그렇게 된것은 아니라며

의 동음높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은 이렇게 일떠섰다. 제 힘으로 보란듯이 일떠선 공장, 작아도 큰 보배공장으로 고려약공장들의 앞장에 선 일터를 종업원들은 열렬한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하고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들어취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애쓴 보람이 있어 고려약 생산은 늘어났지만 힘들게 생산한 약들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생산한 고려약들이 가지수에 있어서는, 질적측면에서 높아 가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지 못했다고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였다.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생명으로 들어취고 나갈데 대해 그토록 강조하는것이 우리 공장의 존망과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그후 공장에서는 여러 부문의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 10여종의 새 제품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받아들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건강식품인 비라셀영양제와 만성간염, 뇌혈전 등의 치료와 예방에 좋은 띄움공생렌차를 비롯한 효능높은 새 고려약들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다.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특사향도 이렇게 개발되었다. 어느해인가 문순옥지배인은 보건부문의 한 연구사가 국내원료로 사향을 대신할수 있는 고려약을 연구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연구사를 찾아가 함께 새 고려약을 어떻게 하나 연구완성하자며 용기를 안겨주었다. 실패를 거듭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면서 떠밀어

주어 마침내 뇌혈전, 심근장애, 가스중독, 뇌진탕 등의 예방치료에 특효있는 특사향을 생산에 도입하여 특허증서까지 받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지금의 지표만 가지고도 계획을 할수 있는데 계속 새 제품을 개발해야 하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문순옥지배인은 공장이 강화발전되는 길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는 데 있다라는 립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후 새 제품이 늘어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새 고려약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게 되자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속에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심과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그에 맞게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늘이고 지배인이 직접 발명가가 되기도 하고 연구사들의 주수가 되어 이 사업에 발 벗고나섰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와 전국과학기술추진들, 평양과 라선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와 전시회들에도 적극 진출하고있다. 이것은 폭넓은 과학기술교류마당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고려약생산의 발전추세와 인민들의 수요를 장악하는데서 효과적인 계기로 되고있다. 이 나날 공장의 과학기술수준은 비상이 높아져 생산능력이 확장되고 뼈성김중, 뼈불기, 습진, 칼슘부족증 등의 치료에 좋은 어로토키시움알약을 개발한 학위소유자도 배출되었다.

첨단기술을 받아들여 만든 효능높은 평천고려약공장의 갖가지 고려약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대단하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흥하는 길이 있다. 성공한 평천고려약공장의 경험은 이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문순옥지배인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래년 이맘쯤에 다시 와보십시오. 그때가면 더 몰라보게 달라질것입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문순옥지배인 (오른쪽에서 두번째)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재미동포는 《고국의 보건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의 적중한 표현은 내가 동경하는 에덴동산 그 자체》라고 하면서 《고국은 지구상에서 치료비라는 말조차 모르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진심으로 되는 찬사라 하겠다.

사실 사회제도가 좋든가 나쁜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제도가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그를 위한 보건정책이 어떠한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의 보건제도는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낌없이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사람중심의 보건제도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하면서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어 무상치료에 대한 공민의 법적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것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부터이다. 당시 모든것이 파피되고 국가의 인적, 물적자원이 전쟁승리에 총동원되어야만 했던 그때 벌써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것만 보아도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 나이, 신앙, 거주지, 직업, 로동의 량과 질, 수입에 관계없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똑같이 베풀어지고있다. 치료는 물론 진단, 실험검사, 예방접종, 보철, 교정기구값이 모두 무료이며 지어 료양치료를 위하여 료양소에 가고오는 려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하고 치료받는 기간 생활보조금까지 지불하고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산간지대, 외진섬, 먼바다의 어로선단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 병원, 진료소 등 각종 의료시설이 자리잡고있어 사람들이 아무때나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받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

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 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서고있지만 이 모든 병원들의 의료봉사도 철저히 무료이다. 이것은 진료비만 해도 수백 US\$, 수술비만도 수천~수만 US\$에 달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공화국에서의 보건제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예방을 앞세워 사람들의 건강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라는데 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기전

인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의사당구역제가 실시되어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호관리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정기적인 예방검진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적의료봉사가 진행되고있다. 의사당구역제는 예방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또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로서 사회주의의학, 예방의학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주민 건강관리제도이다.

하기에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사람들이 공화국의 의사당구역제를 두고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적

보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보건제도는 또한 자립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과 의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공고한 보건제도이다.

인민적보건정책을 원만히 실시하자면 자체의 물질적조건보장, 기술력량과 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구, 설비수단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자립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자체의 의료인군양성기지에서 양성된 보건인군 대부대가 마련되어있

《치료비라는 말조차 모른다》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옥류아동병원에서

다. 그리고 자체의 의과학연구기지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융계 배합한 주제적인 의과학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보건사업이 공고하게 발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어있다.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온갖 질병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죽하면 가장 두려운곳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누구라 할것없이 병원이 라고 대답하겠는가.

누구나 부러워할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에서 사는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재미동포의 말대로 《에덴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안중평

다시 찾아야 할 6.15 (3)

뜨거운 혈육애, 민족애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대결과 전쟁국면에 처해있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민족이건만 이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최대의 적대관계에 놓여있다. 민족의 머리우에는 열혈전쟁의 검은 구름만이 무겁게 떠돌고있다.

6.15시대에는 북남삼천리에 민족애, 혈육의 정이 뜨겁게 차넘쳤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장장 50여년 지속되어온 북과 남사이의 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역사로 바꾸어놓으면서 펼쳐진 가슴뜨거운 광경이었다.

역시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했다. 만나자 정이 통했고 손과 손을 맞잡고 뜨겁게 얼싸안았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는 달랐지만 지나온 50여년의 공백도 5 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은 우리 민족의 혈육의 정을 가를수 없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된 2002년의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공화국은 남조선의 부산에서 진행된 이 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였다.

북녘의 통일사절들을 맞이한 온 부산땅, 남녘땅은 그대로 통일의 환희로 설레이었다. 부산시민들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모여온 각계층 남녘 동포들은 《한겨레남북공동응원단》, 《아리랑응원단》, 《갈매기응원단》 등을 모시고 대회 전기간 공화국의 응원단과 응원활동을 함께 했다. 통일

의 사절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모여든 남녘동포들로 경기장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남조선언론들은 공화국의 응원단을 《꽃응원단》, 《미녀응원단》, 《통일응원단》, 《통일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그것이 결코 그 누구에 대한 《찬양고무》로 되지 않았다. 6.15시대에는 그렇게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느끼고 그에 대해 말하는것이 당연시되었다. 공화국의 선수들이 1등의 시

상대에 올라 감격의 손을 흔들 때 온 관중이 《조국통일》의 합성을 소리높이 웨쳤다. 특히 합봉실선수가 여자마라손경기에서 1등으로 결승선의 테프를 끊었을 때 온 경기장은 말그대로 북남통일의 용광로가 되었다. 남녘의 관중도, 공화국의 응원단도 서로 얼싸안고 우리 겨레는 분명 하나임을 절감하며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6.15시대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민족적공동성, 통일지향이 우선시되고 뜨거운 혈육애가 북과 남의 겨레

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감동적으로 넘쳐났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자,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을 비롯한 북과 남의 각계층은 상봉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만나면 마음과정이 통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능히 통일할 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북녘의 동포형제들을 만난 남녘의 각계층은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진행형, 완료형이라며 민족애, 혈육의 정으로 뜨거운 6.15시대의 벽찬 감격을 토로했다.

그러나 지금 하나의 피줄을 이은 북남관계는 딱 막혀있다. 남조선에서는 북의 현실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도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여성 신은미에 대한 보수당국의 파쇼적인 탄압사건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2014년 11월 황선과 신은미녀성은 공화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부탁하는 남조선의 통일운동, 인권단체들의 제의를 받고 진행된 모임에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낀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꾸밈없이 이야기하였다. 황선녀성은 2005년 평양을 방문하던 도중 평양산원에서 귀여운 옥동녀를 돈 한푼 내지 않고 낚으면서 받았던 격정과 흥분을 그대로 토로하였으며 신은미녀성은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면서 강렬하게 느꼈던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고 희망에 넘쳐있는것이 보였다.》, 《북의 맥주가 맛이 좋고 강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역적패당은 《보안법위반》을 떠들어대며 그들의 인격을 란폭하게 침해

하는 극악한 《마녀사냥》극을 벌리고 비열하게도 철없는 고등학교학생까지 동원하여 백주에 야만적인 테로행위까지 감행하였다.

6.15시대에는 민족적단합과 통일의 열풍속에 북남사이의 래왕은 일상적인 일로 되였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북을 방문하거나 북녘의 동포들이 만나는데가 범법시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 교류와 협력을 주장해도 《친북》, 《리직》, 《간첩》, 《중북》으로 몰려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북찬양고무》, 《리적단체구성가입》, 《편의제공》, 《예비음모》 등 형형색색의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6.15시대에 수많은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지만 오늘은 그것이 한갓 그리움의 추억으로만 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장장 70여년,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시대와 력사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6.15시대에 민족애와 혈육의 정으로 온 삼천리에 뜨겁게 차넘쳤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백두에서 한나까지 다시한번 분출시켜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최 광 역



북남관계 파괴가 사랑인가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가 그 무슨 《2017년 통일백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겨레의 통일외향에 정면대결하여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깨개 망쳐놓은 통일부 것들이 뼈저리게 《통일》이라는 이름을 단 《백서》를 발간하였으니 후안무치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래 통일부가 그 무슨 《백서》를 낸다면 《통일백서》가 아니라 《반통일백서》가 제목이다. 그럼에도 그렇듯 낮간지러운짓을 하는것을 보면 개성공업지구가 동의 전면중단과 《대북제재》, 《북인권법》 제정 등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무너놓은 것들을 합리화해보려고 얼마나 구차스럽게 늘어내고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아도 민족의 통일지향을 짓밟고 대결의 먹장구름만을 몰아온 최악의 장본인은 남조선의 통일부를 비롯한 보수패당이였다.

2016년의 첫 아침 공화국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애국, 애족, 애민의 호소를 발표하면서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

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이라는 통이 큰 원칙적립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른바 사이비전문가들을 언론에 내세워 《남남갈등유발》이니, 《정체성이 의심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헐뜯어댔다. 이것은 지난해 정초에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이요, 《평화통일》이요 뭐요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북남관계선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생색을 내댄 보수당국의 그 무슨 《의지》라는 것이 한갓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보수패당의 반통일적망동은 극악한 동족대결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적권리행사에 대해 미국의 부당한 제재압살소동에 추종하여 매일과 같이 《북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았는가 하면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요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하루아침에 전면폐쇄해버리는 극악한 반통일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북남군사당국회담개최도 제안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은 남조선의 통일부패거리들이 갈 길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겪고있는 억척년과 운명을 함께 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

답은 《선 비핵화, 후 대화》, 《위장평화공세》와 같은 억지주장과 악의에 찬 정치적도발이었다.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계기로 공화국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물론 8.15민족공동행사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모든 성의있는 호소와 노력을 전면 거부하다 못해 역도년이 직접 그 무서운 《8.15경축사》라는 데서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시도》를 그만두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동족의 제안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오히려 굴욕적인 《싸드》배치결정으로 온 남녘땅을 령장들의 힘의 대결장, 핵전쟁터로 만들고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칼도마우에 올려놓는 쓸개빠진짓도 서슴지 않은것만 보아도 민족의 통일년월을 짓밟은 반통일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통일부가 반통일죄악으로 가득찬 저들의 지난 한해를 《정당화》한 《백서》를 발간한것은 초보적인 주변감각도 단 한치의 옳고 그름도 판단할줄 모르는 천하백치들의 행동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박근혜역도의 치마자락에 휘감겨다니며 민족앞에 《반통일부》, 《대결부》, 《전쟁고취부》, 《청와대햇바지》라는 수 치스러운 오명만 남겨놓은 남조선의 통일부패거리들이 갈 길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겪고있는 억척년과 운명을 함께 하는 길밖에 없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대미굴종의 치욕사를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 6.15언론본부 성명 발표 —

보도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박근혜 《정권》의 친미사대정책을 끝장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시키는데 대해 지지하고 《헌정대통령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박근혜가 지난 4년간 범민족수많은 실정 가운데 대미굴종심화와 남북관계파

란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 정도라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박근혜 《정권》이 《싸드》배치도입을 강행하면서 전쟁위기가 높아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는 미국의 《싸드》배치요구를 민중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붕괴론》에 빠져 미국과 함께 《북수뇌부제거》훈련을 내놓고 강행하는 등 남북관계의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박근혜가 파면당한 후에도 《싸드》배치는 예정대로 한다.》는 립장을 굳이 밝히며 파렴치한 제국주의적오만성을 드러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대미굴종심화에는 1953년에 조 작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박근혜가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에 편승하여 해마다 미국남조

동족대결소동이 몰아온 전쟁위기

분계선 남쪽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일 라페 쳐오르는 전쟁연습의 화염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각일각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다.

그래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역적무리들은 동시공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극도의 동족대결책동이 한몫 하고있다.

원래 외세가 전쟁불꽃을 들고 조선반도라는 집안에 불을 지르려 하면 막아야 하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막아나서기는 고사하고 함께 전쟁총을 추어온것이 미친 박근혜와 보수 《정권》이다.

보수패당이 순명의 수호신처럼 믿고 섬겨온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밥먹듯 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히 하면서 군침도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다고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을 해마다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역적무리들은 동시공장에 처박힌 박근혜역도의 극도의 동족대결책동이 한몫 하고있다.

원래 외세가 전쟁불꽃을 들고 조선반도라는 집안에 불을 지르려 하면 막아야 하는것이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막아나서기는 고사하고 함께 전쟁총을 추어온것이 미친 박근혜와 보수 《정권》이다.

보수패당이 순명의 수호신처럼 믿고 섬겨온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밥먹듯 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 땅의 평화와

위협살해보려는것이였다. 저들의 최악의 인권실태는 당반우에 얹혀두고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며 유엔무대에서까지 벌린 해피한 대결모락소동은 외국인들도 역겨워 침을 뱉을 정도였다. 공화국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유인람치하다 못해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북주민들이 남으로 오라고 녀두리까지 늘어놓았었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치려고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였다.

두해전 8월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에 수습발의 포탄까지 쏘아대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태에 몰아간것도 역적패당이다.

남조선을 미국의 북침전초기지로 서슴없이 내맡긴 친미보수패당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술한 미국제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더욱 모험적인 침략전쟁책동에 매여 달려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거침없이 몰아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대결과 전쟁정책을 버리지 않고 분별없이 달려면서 미국상전과 함께 전쟁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있는 쓸개빠진 역적패당이다.

현실은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 대결을 체질화한 친미보수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북남관계가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민족이 전쟁의 재난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있다.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보수패당의 범죄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단호히 끝장내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어제와 다른 오늘의 전쟁

요즘 워싱턴의 군부와 정가 그리고 이남과 그 주변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소리들이 무척 자주 들려오고 있다.

말로 하면 전쟁은 하루에도 수백번 치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쟁이라는것은 분명 엄청난 재앙이지만 그 불길은 이러저러한 요인에 의해 순간에 너무도 쉽게 달릴수 있다.

유럽을 휩쓴 1차세계대전의 거대한 불길에 따라야보에서 울린 한방의 총성에 의해 발화되었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오늘 행성의 도처에서 쉽사리 번져지고있는 내전과 전쟁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난해 8월에도 세계의 화약고인 조선반도에서는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안에서의 원인 모를 지뢰폭발사건을 기화로 실제 전면전쟁이 다시 터질번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다.

지금 조선반도는 전쟁의 문어구에 바짝 들어섰다. 순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최대로 긴박한 정세가 분분초초 흐르고있어 세인이 손에 땀을 쥐고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마치 자기는 전쟁과는 무관한듯이, 누구는 전쟁 나면 피해를 입고 자기는 화를 입지 않는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정치인, 군부인

물들이 더우기 그러하다. 서민들은 전쟁 나면 안된다고 피나게 웨치는데 도망갈 짐을 미리 다 챙긴 인물들은 탄소리를 하고있다.

지금은 조선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세기의 50년대도 아

로 협소한 조선반도지역에는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났다. 지난 전쟁이 재래식전쟁이었다면 다음번 전쟁은 필경 핵전쟁으로 될수 있다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주변나라들과 인류에게 끼칠 재앙이 지난 조선전

대비가 되지 않을것이다. 좁은 남조선지역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 미군의 출격지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지역의 일본도 전쟁의 화염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음을 분명하다.

하다면 미국은 대양건너에 있어 안전할것인가. 지난 세

지배하고 약탈하여왔다. 앞으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그때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것이다. 핵, 수소탄을 장착한 조선의 전략탄도로켓들의 사정범위는 이미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본토에까지 도달하고도 남음이 있다. 수만명

핵항공모함들과 전폭기들을 조선반도 수역과 상공에 끌어들이며 전쟁위기를 몰아왔을 때에도 평양에서는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는 추상같은 선언이 울려나왔다.

세기가 바뀐 오늘 선군의 창검, 핵창검이 숲을 이룬 조선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바라다면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해보자는 멸적의 선언이 울려나와 행성을 뒤흔들고있다.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기승을 부리는 황포한 미국과 1:1로 맞서 전쟁을 하겠으면 하자고 맞선 나라가 과연 있었던가. 조선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평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이 조선의 선언이고 드센배짱이다.

지금 미국과 이남의 호전세력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전쟁열에 들뜬 머리로 현실을 오관하고 만의 하나 《북선제타격》기도를 실천에 옮기려한다면 그 순간은 그들 자신의 몸서리치는 파멸을 불러오는 서곡으로 될것이다. 침략의 본거지들이 있는 모든 곳에 정의의 핵의 무자비한 불세례가 들췌워지리라것은 명백하다.

그때는 누구도 후회할들 아무 소용없게 될것이다.

전쟁은 아이들의 놀음이 아니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허명철

세론 전쟁은 아이들 놀음이 아니다

다. 각종 무장장비의 살상력은 최대로 늘어났다. 반대

전쟁을 원하는 세력

우리 겨레는 전쟁이 터지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전쟁의 잔혹상을 우리 민족처럼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도 찾기 힘들것이다. 인류도 평화를 갈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전쟁이라는 화염은 인류의 곁을 떠날줄 모른다.

바로 전쟁을 바라는 세력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에서는 휴전협정 체결후 지금까지 공고한 평화가 어느 한시도 깃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쟁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박두해오는 때 도 일찌기 없었다.

지금 대양건너의 미국은 조선의 집문앞에 와서 대규모 불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불뭉치를 집안으로 던질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선제타격》, 《군사적대응》, 《미국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지난 기간의 외교정책은 다 실패했다.》...

쟁시기와는 대비도 되지 않은 만큼 엄청나다는 의미이다.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미국정계에서는 너무도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에도 어마어마한 품을 들이고있다.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미국의 핵전략자산들과 방대한 병력을 이남과 그 주변해역에 전개하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실전연습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그 불줄기가 일단 북으로 향해진다면 그것이 선제타격이고 선제공격이다.

명백한것은 선제타격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미국이 북부전쟁을 원하든, 원하지 않은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쟁을 뜻하는것이다.

그 전쟁이 일단 터진다면 그것은 제한이 없는 전쟁, 자비가 없는 세계적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될것이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과는

기의 전쟁들에서는 불을 미국이 질렀지만 정작 미본토에는 포탄 한발 날아들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마음놓고 행성의 도처에서 불을 지르고

조선의 단호한 립장과 의지

조선의 통일정책, 대외정책은 시종 평화로 일관되어있다. 북은 겨레가 사는 조선반도가 전제화염에 휩싸이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또 지금껏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돌맹이 하나 날린적도 없다.

조선의 군사로선은 자위로 특징지어진다. 조선은 국가와 민족의 안전, 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병진로선을 항구적인 전략로선으로 채택했고 핵무기, 수소탄을 보유하고있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검이다.

그러나 조선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는것이 리비아나 이라크와는 확연히 다른 조선이다. 침략의 핵이 있는 한 자위의 핵, 정의의

의 이남주둔 미군, 주일미군은 물론이고 미국본토도 조선전쟁의 거대한 불길에 타번지게 되는것이 피할수 없게 되어있다는 소리이다.

핵을 순간도 놓지 않고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조선의 의지는 날로 더 굳세지고있다. 총에는 총, 핵에는 핵으로 대담하겠다는것이 세계가 보는 조선이다.

리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선택을 바로해야 할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국가의 최고리익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누가 자기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주저없이 단호한 보복, 섬멸의 불세례를 안기려는것은 조선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역적의 기질로 되고 있다.

미국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선원들을 내놓지 않으면 원산을 폭격하겠다고

(시) 정의의 핵보검은 용서치 않으리!

김 윤 식

봄바람 산들 불어오는 3월이건만 살기풍기며 밀려온다 침략의 검은 구름 《키 리졸브》, 《독수리》 전쟁 연습의 총포성 자지러진 저 남녘땅에서 그토록 평화를 사랑하는 이 나라 사람들 《도발자》로 매도한 피에 주린 송양이들이 이제는 아예 세상의 면전에서 동맹 이쳐버렸구나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란 그 위선의 가면마저도!

《참수작전》의 개꿈을 꾸는 강도들의 항공모함이며 공중비적 들을 멸적의 조준경안에 넣은 저 로켓트 들엔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위력이 채워져있다

폭제의 핵을 만능인듯 휘두르며 신성한 이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려 날뛰는 미제 회계제도 《힘에 의한 평화》 떠벌이는 그놈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보여주리라 《힘에 의한 멸망》을

달리는 필수 없는 행성의 악마 비대한 몸집밀고 설쳐대는 미제야수들의 정수리우에 분노한 조선은 또다시 정의의 핵보검 번쩍 비껴들었거니

용서치 않으리라 미제와 역적무리들 끝끝내 이 땅에 제2의 6.25 몰아온다면 보복의 불소나기 가차없이 퍼부어 모든 침략기지를, 악의 소굴 미국땅 영영 없애버리리

어찌 우리의 존엄 해칠수 있으랴 복수의 불벼락 만장약하고 무자비한 징벌의 순간을 분분초초 기다리는 저 핵탄두들엔 세기를 이어 다져온 피라는 증오가 응축돼있고

오,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신 동방의 핵강국-불패의 조선은 제2의 7.27을 반드시 이 땅에 안아 오리라 침략과 전쟁의 화근 없앤 행성의 하늘가에 최후승리의 축포란 높이높이 쏘아 올리리라!

그 무슨 《선제타격》과

누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벌리는 대규모의 북침합동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간이 갈수록 그 호전적, 침략적 성격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번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지난해 해부터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켓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면서 《공격연습》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여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증강된 방대한 병력과 핵전략무기들을 비롯한 침략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해외침략전쟁터에서 악명을 떨친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이보다 앞서 3월 15일 판도의 리더스미공군기지에서 리북한 핵전략무기 《B-1B》편대가 남조선 상동사격장상에 공에 날아들어 공화국의 주요 전략대상물들에 대

한 핵폭탄투하연습을 벌리고 돌아간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일부터 남조선의 동, 서, 남해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연합해상, 수중훈련도 날이 갈수록 북침광기를 더해가고있다. 여기에는 미해군 태평양함대소속 핵잠수함인 《콜롬버스》호도 참가하고있다.

이번 연습에 지난 시기 해외작전에서 악명을 떨친 많은 특수작전부대들도 참가하여 연합특수작전훈련을 벌리고있는것도 간과할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금 연습에는 지난해에 동원되었던 미군의 특수작전부대, 구분대들의 《백악관별동대》로 불리우는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델타 포스》, 《데브그루》를 비롯한 수천명의 병력이 특수작전훈련에 참가하고있다.

이 모험적인 특수작전훈련이 무엇을 뜻하는것인가는 명백하다. 미국이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타격단이 조선반도작전수

역에 배치된것이 북에 대한 《참수작전》이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수 있는것을 암시하려는 《대북무력시위》라고 로골적으로 떠들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호전세력이 노리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 북침전쟁도발이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위협천만한 북침선제공격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는속에서 얼마전 미국무장관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최전선에까지 나타나 전 쟁광기를 부리고 그 무슨 《군사적대응》에 대해 떠들어댔던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무기를 결코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을 펼치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긴장을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고있는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북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은 호전광들이 그들의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압박, 북침전쟁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지르는 역스러운 궤변일뿐이다.

하기에 지금 주변나라들도 핵전략무기들까지 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에 발광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강하게 비난해나서면서 연습의 증지를 요구해나서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그 무엇으로써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공화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략자, 호전광들이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에 단 한점의 불씨라도 떨군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즉시에 단호한 섬멸적보복타격을 가하려는것은 공화국 군대의 드센 배짱이고 멸적의 의지이다.

침략자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

핵전쟁을 몰아오는 합동군사연습중지를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19일 위험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요구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괴뢰들이 13일부터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15일에는 청와대 안

보실장 김관진이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속에 미국을 찾아가 공조강화를 청탁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당국이 지난 10일 《칼빈슨》호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을 기습타격하는 훈련을 벌리였으며 15일에는 《칼빈슨》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여 도발

위험을 높였다고 사실을 규탄하였다. 사실은 평화보장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필요한것은 《싸드》배치나 전쟁연습이 아니라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본사기자



덜레스와 킬러슨

지난 3월 17일 미국무장관 킬러슨이 남조선을 행각하여 친미보수패당과 쑥덕공론을 하고 돌아갔다.

많은 나라들이 주목한 킬러슨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다. 덜레스, 60여년전 조선전쟁도발과 관련하여 치욕스럽게도 이름이 자주 오르곤 하는 인물이다. 당시 미국무성 고문이었다던 덜레스는 후에 미국무장관이 되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조선전쟁을 앞두고 불시에 남조선을 행각하고 돌아갔던 덜레스, 제2조선전쟁의 발발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박두해오고 있는 오늘날 남조선에 화약대를 풍기고 돌아간 킬러슨.

어쩌면 둘은 이름도 비슷하다.

전자는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왔던 악명높은 《전쟁상인》이었다.

당시와 오늘은 남조선의 정치정세부터가 비슷하다.

60여년전 리승만 《정권》은 붕괴직전의 위기에 있었다. 전쟁을 약 한달 앞두고 있던 1950년 5월 30일, 남조선의 제2대 《국회》 의원선거에서 리승만의 《자유당》은 대참패하여 전체의석 210석중 겨우 48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리승만으로서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1950년 6월 12일 워싱턴주재 남조선대사 장면은 리승만 《정권》이 붕괴위기에 처한것

과 관련한 시급한 대책을 취해줄것을 요청하는 보고문을 미국대통령 트루먼에게 보내었다.

저들이 내세운 식민지주주의 파산을 방관할수 없었던 미국은 리승만 《정권》을 《구출》하기 위한 《방도》를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조선전쟁의 도발이었다.

지금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의 붕괴위기와 보수집권세력의 친미굴종추태도 60여년전의 그때를 닮았다.

지난해 4월에 친미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대참패하여 《여소야대》의 《국회》가 되었다가 특대형추문사건으로 박근혜까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여 친미보수진영은 물먹은 담뱃처럼 허물어지게 되었다.

파멸의 함정에 깊숙이 빠진 보수패거리들이 박근혜의 부추김 밑에 매일같이 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대형성거리를 구연의 기발처럼 흔들고 백악관홈페이지에 탄핵불복서명늘음까지 벌리며 미국상전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는것은 60여년전 미국에 조난신호를 급하게 보내던 친미주주 리승만의 행위를 방불케 한다.

다 죽은 남조선의 친미보수 펠지들은 킬러슨이 남조선에 날아들자 구세주나 만난듯이

《동맹강화》와 《대북압박》을 구걸하면서 북침대결전쟁소동강화로 경각에 이른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어리석게 돌아왔다.

덜레스가 남조선에 날아와 리승만도당과 쑥덕공론을 벌릴 때는 북침전쟁준비가 완비되었던 때였다.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전쟁연습도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역대 그 어느때보다 규모도 더 늘고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도 훨씬 더 강해졌다.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수도 있다며 광고하는 핵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하여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투입되고 실전을 가상하여 핵폭탄투하연습도 진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파들은 이 연습이 북을 《신세계타격》하기 위한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말그대로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는 북침전쟁의 화약내로 질게 덮여있다.

덜레스가 남조선을 행각한 목적은 북침전쟁준비를 현지에서 최종점검하고 리승만일당에게 북침전쟁도발지령을 주려 하는것이였다. 그는 남조선에 날아들어 38° 선일대를 시찰하고 남조선군의 북침전쟁준비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리승만에게

전쟁도발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4일 후, 남조선군은 38° 선 전지역에서 일제히 북으로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남조선을 행각한 킬러슨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과 함께 관문점부터 돌아치면서 1976년 관문점사건과 련관되어있는 미군경비대의 초소에도 찾아가 전쟁열을 고취하였으며 서울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는 《북에 대한 전략적인내정책이 끝났다.》느니, 《북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있다느니, 미국이 《외교, 안보,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것》이라느니, 미국은 《유사시 북에 대해 행동할것》이라느니 뉘니하며 전쟁화약내를 한껏 퍼우고 돌아갔다.

60여년전 리승만도당에게 《준비가 된 이상 북진을 하러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 뇌까렸던 덜레스, 세기가 바뀐 오늘 《유사시 북에 군사적으로 대응할것》이라고 쉼쳐댄 킬러슨.

《전쟁상인》 덜레스가 북침전쟁준비상태를 현지에서 점검하고 도발을 지시할 때 미국의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의 장은 조선침략전쟁준비를 위해 일본에 날아가 일본주둔 미군

의 조선출동준비상태를 최종검토하였다.

미국무장관 킬러슨이 남조선을 행각하기전 먼저 일본에 들러 《최우선의 동맹》이니 뉘니하며 반공화국압살의 모의판을 벌려놓은것도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후 일본의 자위대무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조치라는것은 두말할필요가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킬러슨이 취임하기 바쁘게 남조선에서 둘러 날아든것은 정세를 최악의 전쟁접경으로 더욱 몰아가고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북침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것이였다.

보는것처럼 제 땅과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있는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침략적이며 흉악한 본성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다. 60여년전 미국은 아직 된매라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들었다면 오늘의 미국은 선군조선의 드센 강타에 편이어 얻어맞아 코피를 흘리면서도 승냥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젓먹은 힘까지 강그리 동원하여 최후발악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자기 수명을 다 산 제국주의강대나라이다. 이런 미국에 의해 지금 조선반도는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될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펼쳐지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리석게도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침략에 얹아 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리승만피도당을 돌격대로 내세운 미국의 강도적인 불의의 무력침공에 맞서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고 종당에는 3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침략자 미국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영웅적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력은 그때와와는 대비도 할수 없게 무진막강해졌다. 힘은 우주로 치솟고 무자비한 타격력은 미국본토도 불바다에 잠글수 있을 정도로 드세차졌다. 핵을 친 공화국과 맞서보겠다는것이 야말로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세인이 《원자탄과 보병총과의 대결》이라고 했던 지난 조선전쟁에서도 미국은 결국 참패의 수치는 온 고배를 마시었는데 스소탄까지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로켓발사능력까지 가진 동맹의 핵강국에 맞서보았잖아 얻어맞아 퍼투성이가 되고 핵불바다가 될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공화국의 선언을 결코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얼마전 미국무성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조선을 행각하여 몇몇 《대통령》 후보들과 밀담을 가졌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기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들을 만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대미인식 탐색》이라고 평하고있다.

십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백악관, 국무성 등의 주요 인물들이 수시로 《대선》 후보들을 만나 《사상검증》을 하고 미국에 필요한 인물들에 대한 선거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2007년과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친미보수 인물들인 리명박과 박근혜의 《당선》이 조작된데도 미국의 검은 손길이 뻗쳐있다.

미국은 박근혜의 《당선》을 도와 친미보수 《정권》을 연장시키고 그 대가로 전직작전통제권환수를 무한정 연장시키고 막대한 미국제무기들을 팔아 배를 불리웠으며 아시아에서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고 나중에는 《싸드》까지 배치하기로 해 빼앗아먹을것은 다 빼앗아먹어왔다.

이번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조선에 날아든것도 《대통령》 선거에 깊숙

미국의 검은 손

이 개입하여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탐욕적인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말하자면 남조선에서 진보개혁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기 이루어질수 있다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이 사전에 압력을 가해 다음번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시하고 미국의 요구를 고분고분 따르게 하려는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장관이 《〈한〉 미동맹은 계속 지역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될것이며 차기 《정권》이 이를 중시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싸드〉 배치는 공동결정이므로 차기 《정부》가 뒤집으면 안된다.》, 《북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검토할것이다.》라고 떠든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남조선에서의 극적인 정세변화를 위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있는 미국은 다음번에 들어설 《정권》을 겨냥하여 벌써부터 음모로얹음으로 손을 뻗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것은 인민의 힘이다. 박근혜탄핵도 인민이 결정한것이고 남조선의 미래도 종당에는 인민들이 결정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박근혜가 한 대미굴종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기를 바라고 투쟁하고있다.

본사기자 서명수

최근 박근혜공범자들이 탄핵당한 악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유지해보려고 계속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나 외교부 장관 윤병세 등은 미국무장관이 남조선에 날아들자 자기들을 만나준데 대해 감지덕지하여 미국이 저들과 《100% 같이한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느니, 《〈한〉 미동맹의 중요성과 협력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느니 하고 저마다 아첨하느라 야단이였다.

더우기 윤병세는 미국상전의 반공화국폭언에 힘을 얻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싸다다며 《대북공조》를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그런가 하면 군부호전세력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무성 6자회담수석대표 등과의 회담

과 전화통화늘음을 편이여 벌려놓고 반공화국 《제재압박》을 구걸하였다고 한다.

뭇님 버리지 장관에서 모로긴다고 초불민심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고 제 죽음을 스스로 앞당기는 단말마적인 발악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탄핵이후 남조선의 시

순장자들의 가련한 발버둥질

민단체들과 언론,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박근혜가 추진해온 사대매국적이고 동족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외교, 안보분야에 미친 박근혜 《정부》의 폐단은 매우 심각하다.》, 《〈한〉 반도평화

와 번영의 기틀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외교, 안보 《정책》을 신랄히 비난배격하고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관료들은 지난 4년동안 외교, 안보를 수행에 빠뜨린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것을 강력히 요구

얼마전 청와대안보실 실장 김관진이 미국에 가서 푸대접 받은것이나 미국무장관이 윤병세가 차린 만찬회를 거들떠보지 않고 날아간것은 단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미국상전이라고 박근혜의 파면과 함께 명을 다한 주구들을 품다고 쓸어줄리 만무하고 오히려 진날개 만났것으로 여기는것이다.

그토록 충실했던 박근혜도 손외보듯 하는 미국이 그의 펠지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것은 여반장인것이다.

박근혜의 부역자, 악녀와 함께 매장될 순장자들이 제처지도 모르고 《동맹강화》, 《북핵위협》을 찾아대며 구걸망한 《대북공조》와 같은 어리석은 망동으로 날을 보내고있다.

그런다고 받은 대접이란 상가집 개선세이다.

강현철



탄핵은 변혁의 새로운 출발점

남조선에서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지금 남조선초보민심의 한결같은 평가이고 요수이다.

원래 남조선인민들이 수개월째나 초불을 들고 투쟁해온 것은 단지 박근혜의 탄핵이 전부가 아니었다. 박근혜가 상징하는 모든 악의 세력, 부패와 어둠을 청산하고 정의가 살아숨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세상을 안아오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초불집회장에서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박근혜와 함께 공범자인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패거리들, 정경유착으로 노동자대중의 피담을 악착스레 빨아먹어온 재벌들이었다.

박근혜와 사이비목사 최태민일가의 오랜 결탁관계와 추문내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웅간한 인물들은 다 알고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무능, 최순실과의 부정적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보수세력계집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리고 꼭두각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최악의 《국정》 통단을 같이 저질러왔던 것이다.

원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그 뿌리가 부패와 독재로 악명명친 리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두고있으며 명칭을 바꾸며 간신히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 수십년간은 온갖 불의와 범죄, 추문으로 얼룩져 온 만고최악의 력사였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공범자들이 《바른

정당》을 만들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고쳐 살아나보려 하지만 이름을 열백번 바꾼대도 달라질수 없는 것이 부패정당의 체질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박근혜와 같이 한바리에 실어 지옥으로 보내고 부패한 보수의 재집권을 영구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초가 살아숨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세상을 안아오자는 것이었다.

남녘의 각계층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번 초불시위투쟁을 낚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조종을 받아 기업들에 막대한 《기부》를 강요하고 재벌들은 그 대가로 그보다 몇배, 몇십배 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강탈한 《정경유착》의 악취나는 오물도 비단 어제오늘에 다 알고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무능, 최순실과의 부정적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보수세력계집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리고 꼭두각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최악의 《국정》 통단을 같이 저질러왔던 것이다.

원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그 뿌리가 부패와 독재로 악명명친 리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두고있으며 명칭을 바꾸며 간신히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 수십년간은 온갖 불의와 범죄, 추문으로 얼룩져 온 만고최악의 력사였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공범자들이 《바른

정당》을 만들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고쳐 살아나보려 하지만 이름을 열백번 바꾼대도 달라질수 없는 것이 부패정당의 체질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박근혜와 같이 한바리에 실어 지옥으로 보내고 부패한 보수의 재집권을 영구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초가 살아숨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세상을 안아오자는 것이었다.

남녘의 각계층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번 초불시위투쟁을 낚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조종을 받아 기업들에 막대한 《기부》를 강요하고 재벌들은 그 대가로 그보다 몇배, 몇십배 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강탈한 《정경유착》의 악취나는 오물도 비단 어제오늘에 다 알고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무능, 최순실과의 부정적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보수세력계집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리고 꼭두각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최악의 《국정》 통단을 같이 저질러왔던 것이다.

원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그 뿌리가 부패와 독재로 악명명친 리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두고있으며 명칭을 바꾸며 간신히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 수십년간은 온갖 불의와 범죄, 추문으로 얼룩져 온 만고최악의 력사였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공범자들이 《바른

정당》을 만들고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고쳐 살아나보려 하지만 이름을 열백번 바꾼대도 달라질수 없는 것이 부패정당의 체질이다.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박근혜와 같이 한바리에 실어 지옥으로 보내고 부패한 보수의 재집권을 영구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초가 살아숨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새세상을 안아오자는 것이었다.

남녘의 각계층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번 초불시위투쟁을 낚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조종을 받아 기업들에 막대한 《기부》를 강요하고 재벌들은 그 대가로 그보다 몇배, 몇십배 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강탈한 《정경유착》의 악취나는 오물도 비단 어제오늘에 다 알고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무능, 최순실과의 부정적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보수세력계집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그리고 꼭두각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최악의 《국정》 통단을 같이 저질러왔던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자기 운명을 다산 력사의 퇴물들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거슬러 어둠의 세상, 비루한 자기 운명을 어떻게 하나 견져보려고 비렬한 탄핵불복, 진상규명회 등 최후발악하고있지만 불의의 개곳이 정벌되고 정의가 구현되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바른 세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안아오려는 남녘민중의 변혁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역사의 키는 민중이 쥐고있다. 민심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미국하내비도 견져줄수 없는 것이 친미주구 박근혜를 비롯한 부패보수세력의 가련한 운명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것이 참다운 인간사회를 지향하는 남녘민중의 거세찬 흐름이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남녘민중의 도도한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경월

최근 민심의 탄핵심판으로 감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박근혜년이 탄핵결정을 뒤집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어 만사사람의 지탄을 받고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던 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것》이라면서 탄핵불복립장을 로골적으로 밝힌 역대년은 지난 21일 검찰에 불리위가 면서도 사죄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조사에 성실히 립하겠》.》는 짧은 말 한마디로 탄핵결정에 대한 제년의 불복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년이 이미 어중이떠중이들로 그러모은 고용변호인단을 총동원하여 범죄사실들을 은폐하고 탄핵결정을 뒤집기 위해 검찰수사에 대비한 사전의 혼란놓음까지 벌려었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의 악질측근들로 《삼성동맹》이라는 사조직을 내오고 수시

로 사태를 역전시킬 공중이를 벌리였으며 극우보수강패들을 내몰아 탄핵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있다.

최의식이란 꼬물꼬물도 없는 박근혜년은 특검조사기간 수십대의 서류파쇄기를 청와대에 끌어들여 이번 추문사건의 결정적증거물로 될수 있는 자료들을 없애버린데 이어 일부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오면서 제 집으로 몰래 빼돌렸다고 한다.

어둠속의 쥐무리마냥 밤마다 모여 탄핵불복공공이를 벌리고 조직적이며 범죄적인 증거인멸을 위하여 역대년이 검찰에 불리위가 조사를 받으면 서도 뻔뻔스럽게 제년의 죄과를 모두 부정하는 추태를 부린것만 보아도 얼마나 뻔뻔스러운 악마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은 《참으로 죄의식이 없는 확신법》, 《마지막순간까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닌 구미여우의 화신》 등으로 규탄단죄하면서 청와대와 삼성동사택을 압수수색하고 역대년을 당장 구속처형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박근혜년은 물론 그 치마자락에 아직도 매여달리며 살길을 찾아보려는 비굴한 시정배들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탄핵결정이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에 전에 전대미문의 만고최악을 저지른 특급범죄자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를 거역함은 지은 엄청난 죄에 죄를 덧쌓는것으로 되며 역적패당의 말로를 더욱 비참하게 할뿐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어둠속의 쥐

어둠속의 쥐무리마냥 밤마다 모여 탄핵불복공공이를 벌리고 조직적이며 범죄적인 증거인멸을 위하여 역대년이 검찰에 불리위가 조사를 받으면 서도 뻔뻔스럽게 제년의 죄과를 모두 부정하는 추태를 부린것만 보아도 얼마나 뻔뻔스러운 악마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여론을 보내고있다. 권력을 쥐기 위해 카멜레온의 변신을 뽐내는 정치척새들,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부정부패에 눈이 뻥개 돌아치는 돈먹는 하마들, 특대형부정부패의 악녀인 박근혜의 공범자, 하수인들이 바로 보수세력에서 권력을 넘겨보는 자들이다.

《새누리당》내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며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니 간판만 바꾸었으니 그놈이 그놈이고 그식이 장식일뿐이다.

두덤덤미에서 장미꽃이 필수 없다고 천하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인 박근혜에게 붙어서 갖은 범죄를 저질러온자들이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 그 밤에 그 나물일뿐이다.

이런 부패의 오물들이 새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와 지향을 따를리만무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그 밤에 그 나물

사건련루자로 되어있다. 더우기 박근혜탄핵을 위한 초불집회기간 김진태와 같은 자들은 민심에 역행하여 맛불집회를 벌리면서 박근혜를 결사적으로 옹호하였다. 김진태가 초불민심에 정면도전하면서 《바람이 불면 초불이 꺼진다》는 망언을 일삼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한국당》의 친박패거리들이 민심과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불복하며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고있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탄핵에 불복한다고 하던자들이 역대년

로 다름바는 없다. 《원조친박》으로 불리우는 류승민을 비롯하여 《바른정당》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앉히는 데서 《1등공신》들이였고 또 역대년의 팔다리가 되어 친미사대와 동족에게서 집행해운자들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날새게 떨어져나와 《바른정당》의 간판을 들고 역대년과의 차별화를 떠들고있지만 민심은 그들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공범자》로 락인하고 저

1300여일과 8로

남조선인민들의 대규모초불투쟁은 1300여일만에 박근혜 탄핵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얼음공주》가 아직도 독을 쓰고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은 파면된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한 날이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한 속에 검찰소에 들어가기전 박근혜가 한 말은 단 두마디였다고 한다. 《송구하다.》, 《성실

히 립하겠다.》 이 말을 하는데는 불과 8초가 걸리었다. 수차례의 《대국민담화》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박근혜는 뻔뻔스러운 두마디를 내뱉은 그 8초동안에 또다시 모든것을 부정했다. 박근혜탄핵, 박근혜하야의 초불민심의 다섯달도, 특대형부정부패로 엮어진 최악의 과거도,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쭉운 재난과 악정의 4년도. 그 8초는 파면후 자택으로 가면서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내뱉던 양심의 연장이었다. 역시 그는 악녀였다. 그가 장시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전처럼 혐의를 전부 부인해나선것도 이미 예상되던 일이었다. 그래서 더우거나 무서운 징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이다.

본사기자 김현



복잡한 수리아에서의 위기해결과정

수리아에서 내전이 7년째 접어들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중동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2011년 이 지역에는 《색갈혁명》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수리아에서는 정세가 불안해지고 내전이 일어났으며 《이슬람교국가》라는 극단주의적 테러조직까지 등장하여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6년간의 분쟁으로 수리아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1 000억US\$에 달하는 경제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수리아정부는 최근 테러분자들을 소탕하고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를 강화하고있다. 3월초 《이슬람교국가》의 테러분자들에게 련속적인 공습을 가한 수리아군은 팔미라시로 진격하여 도시를 완전히 탈

환하였다. 현재 테러분자들이 매설한 지뢰를 비롯한 폭발물 처리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이로써 수리아군은 팔미라시를 거점으로 하여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더욱 확대하고 테러분자들의 보급로를 차단할수 있게 되었다. 이 나라 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팔미라시탈환은 최근에 알레보도의 동부지역에서 거둔 승리와 맞먹으며 테러분자들에게 있어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수리아의 전 령도에서 안정이 이룩될 때까지 《이슬람교국가》, 《알 카이다》와 련관되어있는 반정부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멈추지 않을 의지를 표적하였다. 수리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있다. 3월 15일 유엔의 고위관계자들은 교전측들에서

로의 의견상이를 해소하고 최악의 분쟁인 수리아 내전을 조속히 종식시킬것을 호소하였다. 3월 14일과 15일 까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수리아문제에 관한 제3차 국제회담이 진행되었다. 앞서 있던 제1차, 2차회담들은 지난해 12월 로씨야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관련측들사이에 마련된 정화를 계속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3차회담끝에 이란과 로씨야, 튀르키예의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수리아에서 실시되고있는 평화제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랍의 언론들이 전한 데 의하면 미군사령부는 수리아에서 지상전투작전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수리아정부군이 아니라 로씨야항공공우주군지휘부와 필요한 접촉을 가지기를 여전히 거절하고 수리아반정부군을 지원하

기 위한 공격작전만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9일 《반테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의 북부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2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이슬람교국가》의 통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에서는 미국의 지지밑에 수리아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반정부군기관들이 생겨나고있다. 미국은 수리아의 원유매장지들을 자기의 통제밑에 두기 위해 수리아반정부군의 방호하에 주요 원유기지들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방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해병대의 예비부대들이 이미 수리아로 이동하였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3월 13일 100여명의 미해병대원들이 선발대로 수리아에 기여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과의 회견에서 현 미행정부가 수리아에서 국제테러조직인 《이슬람교국가》와의 싸움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까발하면서 자기 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미군을 침략자로 락인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원유를 위해 이라크를 무력으로 라고왔던것처럼 수리아에서도 원유를 노리는것만큼 이 나라에서의 안정을 바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수리아위기가 조속히 해결되기 어렵다고 평하고있다. 수리아에서의 위기해결과정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평화파괴자, 전쟁주범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김성림

만평 비겁한 부역자들



민족의 자랑-조선치마저고리

세상에는 제 나름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자랑하는 옷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공화국의 여성들 누구나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고 제일 사랑하고 있다. 따뜻한 봄계절에 들어선 요즘 조선치마저고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깨끗하고 소박하면서도 은근한 아름다움을 사랑한 우리 여성들은 그 형태와 색과 무늬에서 고상하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었다. 조선치마저고리의 특징

은 독특한 비례로 이루어진 것, 치마저고리의 선들이 부드럽고 툭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치마저고리의 독특한 비례라고 할 때 그것은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의 비례를 말한다. 그것은 극적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례차이가 크다. 비례차이가 그렇게 큰데도 불안한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여기에 조선치마저고리의 매력이 있다. 그 비결은 짧은 저고리

의 몸체와 연결된 적당한 폭의 두 소매와 가슴 중심에 드리워진 두가닥의 고름이 저고리의 면적과 무게를 보충하면서 안정된 균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단정한 것을 좋아한 조선여성들은 웃고름도 되는 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비모양의 매듭이 되게 매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이런 웃고름을 가리켜 외국인들은 동방의 신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저고리의 옷깃에 흰천으로 동정을 만들어 대는 것을 관습으로 여겨왔다. 동정은 조선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선치마저고리에만 고유한 형식이다. 조선치마저고리의 특징은 그 색과 무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외유내강한 조선여성들은 예로부터 옥색, 초록색, 분홍색 등은 연한 색 또는 중간색

인사말에 비친 현실

해는 아침이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로 거리는 마냥 붐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인사말은 얼마나 정다운가.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짙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신의 하루를 보내야지요.》 오가는 인사말은 비록 길지 않지만 거기에 더 좋아질래 일에 대한 확신과 랑만,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행복감이 넘쳐 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 누구나 자주적인 삶을 누려가고 있다.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삶이 국가적인 보살핌속에 담보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공화국인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집세와 같은 세금이란 말조차 모르고 희망과 재능에 따라 배움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 것만큼 진정 어린 축하와 값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며 영예가 되는 세상, 생각만 해도 가슴젖어와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더 높고, 더 빨리 세계를 앞서나가는 열망으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그런 열정으로 하여 서로 다정히 나누는 인사말들이 것처럼 생기와 희열에 넘쳐 있는 것이 아닌가. 허나 최악의 인권불모지 남조선에서는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고통과 울분으로 가득찬 절규로 울리고 있다. 《반역통치 때문에 저는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웃친 회함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녕하지 못합니다.》와 같은 인사말들이 장마철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이런 인사말들에는 절망과 비판속에 날과 달을 보내야 하는 남조선의 사회현실이 그대로 비껴 있다. 남조선에서는 80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로동자

들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고 4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어 로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살림이 너무 어려워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참사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자살률은 10만명당 33명으로서 지난 10년동안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자살률과 로인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한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교수가 《우리 사회는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다. 사회해체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였겠는가. 자주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에서는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절망과 울분에 찬 절규로밖에 울릴수 없는 것이다.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인간존중의 사회주의제도와 인권유린의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또한 우리 여성들은 저고리의 옷깃에 흰천으로 동정을 만들어 대는 것을 관습으로 여겨왔다. 동정은 조선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선치마저고리에만 고유한 형식이다. 조선치마저고리의 특징은 그 색과 무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외유내강한 조선여성들은 예로부터 옥색, 초록색, 분홍색 등은 연한 색 또는 중간색

목표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쟁시기 주요 요충지들과 주요 전투장들에 대한 주석과 함께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과 대상, 인물들에 대한 저자 및 고려시기 이름있는 학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당 전쟁 사실들에 대한 지리적 및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동국병감》에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및 시대적 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적층군사상을 선전하고 반인민적이며 사대주의적인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는 부족점도 있다. 그러나 《동국병감》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전쟁사관계 병서로서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의 역사를 연구하고 소개선전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가치있는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로광혁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있게 만들도록 하기 바랍니다.》라는 의정부의 의견을 당시 조선봉건국가의 임금이었던 문종이 승인하여 편찬되었다. 조선봉건국가에서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은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사실들을 전문취급하여 그 경

무제의 고조선 침입부터 1018년 고려에 대한 거란의 3차침입까지 20개의 항목으로, 하권은 1107년 고려의 윤관이 녀진족을 몰아내고 북방에 9성을 구축한 때로부터 1382년 고려가 녀진의 호발도의 침입을 격퇴한 사실까지의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민족고전 동국병감》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동국병감》은 고대로부터 14세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전쟁 및 전투관련사료들을 뽑아 한데 묶어 편찬되어 조선봉건국가의 중요 병서의 하나로 리용된 전쟁사관계의 병서이다. 조선봉건국가이전 시기의 우리 나라와 북방의 력대국가들과 여러 민족사이의 전쟁력사사실들을 수록하고 그 경험과 교훈들을 종합한 《동국병감》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중세 우리 나라 군사예술의 발전면모를 비롯한 력사연구의 여러 분야에 가치있는 사료들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으로 된다. 《동국병감》은 1450년 3월 《...세나라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저쪽의 적들이 침범해온 사실들과 우리 나라에서 취한 방비대책을 놓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참고로 불수

사화

매화 한 그루 (7)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집안에 들어선 그들은 서발막대 휘둘러도 겁볼 하나 걸릴것 없는 김홍도의 오막살이를 보고 크게 놀랐다. 《아니, 이런 변 봤나. 나라의 재사가 이런데서 살다니 정말 믿을수가 없군.》 《이렇게 령 빈 집에서 그렇듯 훌륭한 명화들이 태어나다니... 썩-썩!》 《난 정말 단원선생이 이렇듯 어렵게 사는줄은 차마 몰랐네.》 《사람이 먹고 입고서야 그림도 있는법인데... 그 많은 보배그림을 선생은 어떻게 다 그렸을까?》 《...》 그들은 김홍도의 가난이 모두 저들자신의 탓

이기라도 한듯 근심에 싸여 걱정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언제 나타났는지 민씨가 엽전주머니 하나를 김홍도앞에 내놓았다. 《단원선생 그리고 여러분네들, 날 용서하오. 나도 사람이 아니겠소. 나도 사람이 아니겠소. 이진 우리 집에서 여러 분네들이 모은게고.》라고 하면서 그는 또 다른 주머니 하나를 꺼내들며 《이진 내가 속죄를 뜻해서... 단원선생, 인정이 나를 정신들게 하였소 그려.》하고 피스럽게 뇌이였다. 사람들은 김홍도에게 부디 명화를 남겨 세상을 기쁘게 해달라고 당부를 남기고 헤어져갔다. 그러

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두세사람씩 더 배리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가운데는 누구는 목직한 쌀자루를 메고 왔고 누구는 무명통구리를, 또 누구는 기름단지, 누구는 닭알구레미를 안고왔다. 그도저도 없는 사람들은 참지 한권을 내놓으며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엽전이 두어 줄 들어있는 주머니를 내놓기도 하였다. 김홍도는 이들앞에서 너무도 황공스러워 몸을 바를 몰라했다. 아, 내가 어떻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부러 이렇듯 사랑을 받게 되었던가. 이들은 나더러 좋은

그림을 많이 남겨 세상을 기쁘게 만들어달라 했지. 보답하자. 피와 땀을 바쳐 기어이! 김홍도는 못사람들의 이렇듯 뜨거운 인정에 접할 수록 좋은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겠다는 다짐을 굳

르느 꽃으로 화폭에 옮겨야 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게으름이 있거나 진정이 아닌 어떤 요령이 깃들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인정에 대한 무서운 배신자이다.

꽃이 시들기 전에 생생한 그대로 화폭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닷새후에 드디어 김홍도는 그림에서 붓을 뗐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인정에 대한 무서운 배신자이다. 김홍도는 이러한 그들 앞에 진심을 털어놓았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인정이 아니었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정이 애오라지 힘이 되고 재간이 되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은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기회에 이 소식에 접한 박지원은 제자들

